

석유화학, 국제유가 폭등 대책은?

나프타 가격강세로 채산성 악화 ... 화학섬유 · 전기전자도 문제

국제원자재 가격이 들쭉이면서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 화학섬유, 정유 등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최종 판매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아 원재료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나프타 가격이 중동지역 긴장고조와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12월 중순 톤당 270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은 가격협상에서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수익성 악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섬유기업들도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Polyester 원료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과 나일론 원료인 Caprolactam 가격은 7월 일시적으로 조정세를 보이다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재료 생산기업인 삼성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카프로 등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중국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02년 초부터 가격을 인상해왔다.

원유가 상승은 정유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원유가격 상승이 국내 정유기업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동산 Dubai유 구매비중을 낮추고 Brent유,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는 가전제품 원자재인 동 알루미늄 오일(냉동고용) 등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구매처 변경 등 다양한 구매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는 특히 스틸 레진(플라스틱 재료) 원지(박스용) 목재(포장용) 등 덩달아 뛰고 있는 국내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외 구매로 돌파할 방침이다.

대우전자는 철판은 수요증가, 합성수지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가격 인상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웨이퍼와 파우더 등을 수입하는 삼성전기도 현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구매원을 다원화해 아직 영향이 없지만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처 다변화와 지속적인 내재화 노력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2/ 16 >